■ 민족문화연구 제98호(2023.0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59-380.
http://doi.org/10.17948/kcs.2023..98.359

황윤석의 義盈庫 仕宦期 의영고의 위상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정욱재(鄭旭宰)*

목 차

1. 머리말
2. 관찬자료로 본 義盈庫의 연혁
3. 『頤齋亂藁』로 본 18세기 義盈庫의 모습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황윤석의 『이재난고』를 통해 18세기 의영고의 위상과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의영고는 고려후기에 명칭이 등장한 관청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 왕실공상에 참여하는 공상아문의 하나로 호조의 종5품아문에 속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의영고의 위상은 낮아져서 主簿가 주재관이 된 종6품아문이 되었고, 1882년에 혁파될 때까지 종5품아문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재난고』를 통해 본 의영고는 관찬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영고의 세 관원, 즉 주부는 國忌日에 素膳을, 직장은 대궐 안에서 龍枝와 기름(油)을, 봉사는 黃燭을 각각 진배하는 것을 주관하는 등 각자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각각 달랐다. 그러나 황윤석이 근무하던 당시에는 업무 분장에 상관없이 해당일에 입번하는 사람이 의영고의 직무를 처리하고 그 책임도 입번자가 담당하는 관습이 생겼다.

공상물자를 마련하는 방식도 공안에 기재된 토산 현물을 지방에서 수취하거나, 아문에 속한 장인을 통해 물품을 직접 제작하여 궐내에 진배하던 조선전기와 다르게 18세기 의영고는 공인을 통해 소요 물품을 납품받는 형태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다. 공물아문에서 담당하던 공물 관리와 조달의 업무가 공인에게 전가되면서 의영고에 비축된 공물은

*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없고 장부만 관리하면 되는 당대의 상황은 조선전기에 없던 장무서원을 출현하게 만들었다. 즉 현물관리가 아닌 장부 관리가 주요한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장부관리와 문서행정을 위한 전문적인 사람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17세기 전반기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掌務書員이 1768년 7월부터 1769년 6월까지 황윤석이 근무한 의영고에 마치 정식 직원처럼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19세기에 편찬된 「육전조례」에 장무서원이 의영고 소속 서리로 공식 기재된 것은 이런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재난고』는 관찬자료에서 미처 포착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의 단면을 수록하여 조선후기 역사상을 현장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준다.

주제어: 황윤석, 『이재난고』, 의영고, 호조, 장무서리.

1. 머리말

頤齋 黃胤錫(1729-1791)은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보였던 18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당대에 박학다식한 학자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천문 역상에 관한 한 당대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황윤석은 문과급제를 하지 못하여 蔭官으로 진출하였다는 점과 그의 가정적 배경이 권문세가와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주로 낮은 직책에 머물러 그가 지닌 경륜을 펼치지 못하였다.[1)]

황윤석은 비록 관료로서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이룩한 학문적 성취는 상당히 높았다. 그는 평생 책을 가까이하며 자신의 학문을 넓혔으며, 그가 사귄 인물들도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이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10세부터 63세에 이르기까지 직접 작성한 일기인 『頤齋亂藁』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재난고』는 평생 동안 그가 겪었던 일상과 읽었던 책의 내용・견문・시문・일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한 글이다. 『이재난고』는 한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 즉 영조대와 정조 초년의 역사와 문화, 언어, 풍속, 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그 분량도 매우 방대하다. 과거제도의 실상, 성균관의 교육제도에서 물품에 대한 가격, 선물 받은 금액 등까지 기록한[2)] 이 일기는 조선

1) 하우봉, 「이재 황윤석의 사회사상」, 『이재 황윤석』, 민음사, 1994, 18-22면.
2) 이강오, 「해제」, 『頤齋亂藁』 제1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후기 사회의 역사적인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기록한 기간의 장구함과 분야의 다양성, 기록의 상세함에서 단연 돋보이는 『頤齋亂藁』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서되어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재난고』는 현재 황윤석 개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사회의 시대상을 연구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3] 본고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이재난고』를 기본 자료로 하여 황윤석이 義盈庫 奉事(종8품)로 근무했던 기간(1768년 7월-1769년 6월)을 중심으로 의영고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황윤석의 의영고 근무에 주목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윤석은 莊陵參奉에서 의영고 봉사로 승진하면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서울 정계의 변화를 소상히 알게 되었고, 조보를 볼 수 있었으며 시골에서 쉽게 구하여 읽을 수 없는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시골에서 줄곧 생활하다가 불혹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온 그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의 생활은 그의 견문을 넓혀주고 그의 학문적 역량을 더욱 깊게 형성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황윤석은 전보다 더욱 경화사족과 인연을 맺고 교유를 확대하게 된다.[4] 따라서 한 개인의 삶에 변화의 계기를 준 시기의 내용을 살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둘째, 의영고라는 생소한 부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계기를 준다. 고려・조선시대 궁중에서 쓰이는 기름・꿀・황랍 등의 물품을 관리하던 작은 관청으로 조선시대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황윤석 본인이 스스로 "기록벽이 있다"고 밝힌 것처럼 그는 자신의 관직 생활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최대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기록을 통해서 관찬사료에서 볼 수 없는 이면과 역사적 현장감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꼼꼼한 기록 덕분에 18세기 典牲署의 인적구성과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3) 황윤석과 『이재난고』에 대한 연구성과는 역사학・국문학・한문학 등에서 많이 나왔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대해선 노혜경, 『朝鮮後期 守令 行政의 實際-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혜안, 2006; 정수환, 『조선후기 화폐유통과 경제생활』, 경인문화사, 2013; 이상봉, 「頤齋 黃胤錫의 西行漢詩 硏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8 참조.

4) 박현순, 「지방 지식인 黃胤錫과 京華士族의 교유」, 『한국사연구』 163, 한국사연구회, 2013 참조.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5] 마찬가지로 의영고라는 부서에서 개인이 생활하고 느끼고 고뇌했던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말단공무원이 지금의 정치・경제・문화 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무시하지 않는다. 황윤석이 의영고 봉사로 근무하면서 기록한 생활 모습은 당시 조선사회가 지닌 역사적 실상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가 인간집단의 경험을 기록한 것[6]으로 정의될 때, 관찬사료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18세기 후반 의영고가 지닌 역사적 현장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그가 의영고의 업무를 이해하고 근무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갈등은 오히려 관찬사서에서 볼 수 없는 하급관료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준다. 비록 일기자료가 개인의 기록에 불과하여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국지적 한계를 지니지만, 공식 자료가 보여주지 못한 당대의 현장성과 이면, 생동감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즉, 의영고와 소속 관원들의 실제 업무와 당대 모습의 단면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의 역사상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며, 조선후기 사회를 더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준다.

사실 사회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그것을 종합하는 방식은 매우 어렵고 세계와 인간을 섬세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의 이름을 가진 구체적인 인간을 관찰하고 잘 분석함으로써 그가 살아가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이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다.[7] 황윤석이 남긴 『이재난고』는 그 시대를 더욱 알 수 있는 한 개인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사회의 역사적 현장성을 알려주고 있다. 본고는 이런 까닭으로 1년 동안 황윤석가 근무했던 의영고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의영고가 어떤 관청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찬자료를[8] 중심으로 의영고의 연혁을 제도적인 측면

5) 노혜경, 「18세기 典牲署의 인적구성과 기능—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6) 다니엘스 著, 이석우 譯, 『역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3.
7) 주경철,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문학과 지성사, 1999, 152-153면.
8) 필자가 이 글에서 관찬자료로 인용한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등의 원문과 번역문은 모두 國史編纂委員會(http://www.history.go.kr/)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자료를 이용하였다. 번역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일부는 필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황윤석의 의영고 봉사 생활을 통해 18세기 의영고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모습을 살펴하고 이를 통해 당대의 시대적 단면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재난고』를[9] 통해 의영고라는 관청을 둘러싼 당대의 모습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재난고』에 보이는 다양한 다른 내용에 주목하는 계기를 주어 그의 생애 연구와 18세기 조선사회의 연구에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2. 관찬자료로 본 義盈庫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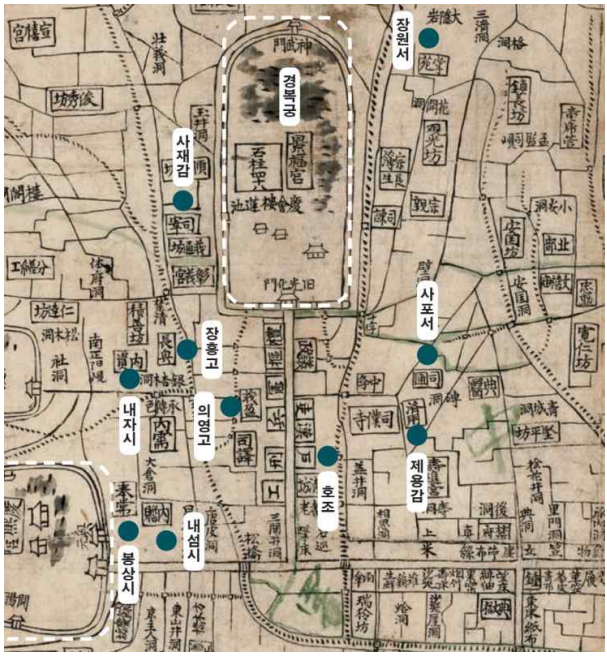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제작된 다수의 한성부 지도를 통해 의영고의 위치를 살펴보려면 우선 당시 서울의 도로를 언급해야 한다. 서울의 도로는 돈의문과 흥인지문을 좌우로 관통하는 동서대로와 광통교에서 숭례문으로 통하는 남북대로를 뼈대로 하고 있으며, 대로 주변에 각 坊과 洞으로 이어지는 소로가 조선후기까지 분화되고 있었다. 특히 육조거리는 광화문에서 동서대로로 나아가는 국왕의 御路이자, 육조 이하 정부 관원들의 사환길로 활용되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좌우로 의정부・육조와 사헌부・한성부・기로소가 들어섰으며, 육조거리 밖으로 왕실부양과 국가행정을 담당하던 各司가 위치하였다.[10] 의영고는 왕실에 물자를 진배하던 아문으로 경복궁 앞 육조거리와 인접한 積善坊에 위치하고 있었다. 즉 의영고는 육조거리의 서쪽에 위치한 공조 및 사헌부와 좌우로, 사역원과 앞뒤로 거리를 두고 거의 나란히 배치되고 있었다. 의영고가 있었던 동네를 의영동이라 불렀는데,[11] 지금의 종로구 도렴동에 해당된다.

---

9) 필자가 주 자료로 사용하는 『이재난고』 제2책은 199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활자본이다.

10) 최주희, 「육조거리 주변 공물아문의 역할과 관원의 일상 업무」, 『한양의 중심 육조거리』, 서울역사박물관, 2020, 251면.

11) 『이재난고』 2, 159면. “行至景福宮大街 自工曹南小洞 折而西北 過司譯院大門南 又折而西北 至義盈庫 其洞曰義盈洞也.”



[그림 1] 조선후기 의영고 위치 [『조선경성도』(부분)]

황윤석은 1768년(영조 45년) 6월 21일(이하 음력) 저녁에 자신을 찾아온 의영고 하인에게 자신이 의영고 봉사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12] 이것을 계기로 황윤석은 하급관료에 불과하지만,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가 근무하게 된 의영고가 어떠한 관청인지 살펴보자. 우선 관찬자료를 중심으로 의영고의 직제, 기능 등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의영고라는 명칭의 관청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려후기였다. 고려가 원에 의해 간섭을 받던 1308년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의영고가 처음 설치되었다. 조선전기에 편찬된 『고려사』에는 의영고에 대해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였다. 즉 "충렬왕 34년(1308)에 충선왕 때 종5품의 使 1명, 종6품의 副使 1명, 종 7품의 直長 1명을 두었다. 공민왕

12) 『이재난고』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31면. "是夕京報至 乃義盈庫下人也 [中略] 其教旨曰 黃胤錫爲朝散大夫行義盈庫奉事者 乾隆三十三年 六月十七日 安施命之寶御寶四字."

때에 종8품의 主簿를 추가로 두었다"는 기록만 남기고 있다.[13] '庫'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물품을 보관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으나, 의영고의 담당 업무와 관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았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의영고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시대 관찬자료에 보이는 의영고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우선 고려왕실에서 쓰이는 기름・꿀・과일 등의 물품을 보관하였던 왕실 私藏庫의 하나로 추정된다.

고려왕조가 멸망하고 조선왕조가 개창되었으나 의영고는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었다. 태조 원년에 文武百官의 官制를 정비하였을 때, 의영고는 油蜜・菓實・藿茸 등을 수입・지출하는 일을 관장하는 부서로 규정되었다. 의영고에 종사하는 관원은 종5품 使 1명, 종6품 副使 2명, 종7품 直長 2명, 종8품 主簿 2명 총 7명을 두게 했다.[14] 고려시대에 비해 인원이 2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의영고의 관리들이 직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의영고는 종5품아문으로 육조 중에서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재정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호조에[15] 소속되었다.[16]

현물공납제가 유지되던 조선전기에는 왕실공상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供上衙門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供上은 공물과 진상 중 왕실구성원에게 바치는 물품을 별도로 부르는 말이다. 궁궐 밖에 위치한 공상아문은 주로 외방군현에서 올라오는 공물을 수취하여 때에 맞게 대궐에 진배하였다. 의영고는 왕실공상에 참여하는 공상아문의 하나였다.[17]

그 후 의영고는 몇 번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태종대 관제개혁을 통해 왕실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王室府와 私藏庫는 대부분 소멸되었으며, 고려

13) 『高麗史』志 卷第三十一 百官二 義盈庫條. "義盈庫 忠烈王三十四年 忠宣置使一人秩從五品 副使從六品 直長一人從七品 恭愍王增置注簿從八品."
14) 『태조실록』 권1, 1년 7월 28일조.
15) 조선후기 호조에 대해서는 임성수, 「朝鮮後期 戶曹의 財政運營 硏究—加入・鑄錢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참조.
16) 『태종실록』 권9, 5년 3월 1일조.
17)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84-85면.

말의 사장고를 계승한 內資寺, 內贍寺 등이 공상아문으로 전환되었다. 궐외의 공상아문은 다시 왕실공상을 전담하는 專供衙門과 타 아문에도 물품을 조달하는 兼供衙門으로 구분되었는데, 의영고는 奉常寺, 司僕寺, 禮賓寺, 濟用監, 司宰監, 長興庫, 典牲署 등과 함께 겸공아문으로 정비되었다.[18] 의영고의 관원도 이에 따라 변하였는데 1414년(태종 14) 1월에 주부는 副直長으로 고쳐졌다.[19] 1426년(세종 8)에는 의영고에 소속된 選上奴婢 100명 중에서 70명을 줄였으며,[20] 1433년(세종 15)에 직장 한 명을 久任하는 관리로 두었다.[21] 1466년(세조 12)에 使를 고쳐서 令으로, 부직장을 봉사로 고쳐졌다.[22] 이어서 성종대 편찬한 『경국대전』에서 의영고는 "油·蜜·黃蠟·素物·胡椒 등"을 관장하며 종5품 令 1명, 종6품 주부 1명,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을 두는 호조의 종5품아문으로 확정되었다.[23]

요약한다면 임진왜란 이전의 의영고는 공상아문의 하나로, 提調가 배치되지 않는 無堂上衙門 중에 하나인 종5품아문으로[24] 기름, 꿀, 황랍, 素物(해조류와 버섯류), 호초 등의 물품을 주관하는 관청이었다. 관원은 종5품 영 1명, 종6품 주부 1명,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을 두었으며 직장 이하 一員은 久任으로 규정되었다.[25] 그런데 앞에서 언급된 물품 외에도 의영고는 초[燭]도 보관하였다가 夜對에서 사용될 때 전담하여 供上하였던 것 같다.

> 夜對가 근래 오랫동안 폐지되었습니다. 들으니 의영고에서 으레 야대에 쓰이는 초를 진봉하였는데, 그 초는 모두 山川에 祈禱하는 일에 다 썼다고 합니다. (…) 上(중종-필자)이 말하기를, "경연 때에 과연 강론하는 일이 없었고 야대도 근래 하지 않았다. 의영고의 초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몰랐고 지금 비로소 들었다(…)"하였다.[26]

---

18) 최주희, 앞의 글,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85면.
19) 『태종실록』 권27, 14년 1월 18일조.
20) 『세종실록』 권34, 8년 11월 5일조.
21) 『세종실록』 권60, 15년 6월 1일조.
22) 『세조실록』 권38, 12년 1월 15일조.
23) 『經國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92-93면.
24) 한우근 외 4명,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87면.
25) 한우근 외 4명, 『註釋 經國大典』 飜譯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59면.

의영고는 조선전기부터 초를 보관하고 있었고 주로 야대가 행해질 때 초를 전담하여 공급하고 있었다. 위의 기록은 아마도 연산군대를 거치며 야대가 폐지되어 초가 사용되지 않았고, 야대 때 사용되는 초가 산천에 기도하는데 사용되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종도 의영고에서 바치는 야대용 초가 산천에 기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실상 의영고에서 초를 왕실에 공상하는 일은 의영고 관직의 담당 업무로 정착되었던 같다. 뒤에서 살피겠지만, 황윤석이 의영고 봉사로 재직하던 18세기 중후반에 이미 의영고 봉사는 燭色이라는[27] 언급에서도 의영고 관리가 궁궐에 燈燭을 바치는 업무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는 무너진 국가체제를 복구하면서 각종 제도를 재편하였다. 의영고 역시 그런 변화를 피할 수 없었는데, 임진왜란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던 의영고는 1609년(광해군 1)에 다시 복구되었다.[28] 그런데 영이 없어지고 종6품의 주부가 주재관이 되면서 종6품아문이 되었는데, 영이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 1592년(선조 25) 8월 16일에 직산 현감 朴宜를 兼義盈庫令으로 삼았다[29]는 기록으로 보아 임진왜란 바로 직전까지 의영고는 종5품아문이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황윤석이 의영고의 심부름꾼에게 의영고 규례를 물어봤을 때, 심부름꾼의 답변 중에서 의영고의 주요 관리 세 사람을 주부, 직장, 봉사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종5품아문이었던 의영고는 실질적으로 주부가 주재관인 종6품아문으로 되어 있었다.[30]

사실상 의영고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의영고 자체가 많이 쇠락해진 때가 있었다. 17세기 현종대에 의영고가 담장이 무너지고 庫間도 供上雜物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협소하여 그것을 供納主人에게 分授하는 등 中央各司 중에서

---

26) 『중종실록』권99, 37년 10월 30일조. "夜對近又久廢 聞義盈庫 例進夜對之燭 而其燭盡歸於山川祈禱之事云 (中略) 上曰 經筵之時 果無講論 夜對近亦不爲也 義盈庫燭 則予全不知 而今始聞之."
27) 『이재난고』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47면. "義盈庫奉事 又是燭色."
28) 『광해군일기』 권7, 즉위년 8월 4일조.
29) 『선조실록』 권29, 25년 8월 16일조.
30) 『이재난고』 2, 131면. "招問義盈陪使令 以本庫規例則曰 本庫官員三位 主簿一 直長一 奉事一."

가장 凋殘하였다고 평가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의영고 직장 兪棨가 의영고 건물을 지어 공상의 물품을 받아 보관하고 이전의 공납주인에게 분수하는 폐단을 없애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정상을 찾았다.[31] 그러나 의영고는 종5품아문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런 점은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에 義盈庫令이 없어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32] 1866년 12월에 완성되고 1867년 5월에 반포된 『육전조례』에 역시 종6품 주부를 1명 둔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의영고는 이미 종6품아문으로 간주되고 있었다.[33] 1882년(고종 19)에 혁파될 때까지 의영고는 종6품아문으로 유지된 채, 끝내 종5품아문으로 회복되지 않았다.[34]

3. 『頤齋亂藁』로 본 18세기 義盈庫의 모습

황윤석은 의영고 봉사로 임명받은 것을 인지한 다음부터 바로 의영고 아전들로부터 의영고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듣고 부임하였다. 곧 의영고 위치,[35] 봉사의 녹봉,[36] 각 관원들의 구체적인 임무[37] 등에 대하여 미리 파악한 것이다. 비록 의영고 봉사가 하급 관료이지만 지방이 아닌 서울의 관청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려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황윤석은 1768년(영조 45년) 6월 28일 떠날 준비를 한 후[38] 다음날 새벽에

---

31) 『승정원일기』 165책, 현종 원년 11월 10일(신유). "李慶徽 以戶曹言啓曰 各司中, 義盈庫極其凋殘, 不但墻垣之頹圮成路 至於庫間 亦甚狹隘 供上雜物 無以容置 分授於供納主人 臨時取用 事之苟簡, 莫甚於此, 而 本庫直長兪棨 差除本任之後 盡心料理 多般拮据 作樓庫七間 藏置供上之物 以除分授主人之弊 墻垣之頹圮處 亦盡修築 以成公廨貌樣 誠爲可嘉."

32) 『大典通編』 義盈庫條(학민문화사 영인본, 1992, 114면).

33) 『六典條例』 乾, 학민문화사, 2003, 569면. 여기에 실린 의영고 소속 인원은 다음과 같다 "종6품 主簿 1명, 종7품 直長 1명, 종8품 奉事 1명 吏胥: 書員 4명, 掌務書員 1명, 庫直 1명, 大廳直 1명 徒隷: 使令 4명, 軍士 1명."

34) 『고종실록』 권19, 19년 12월 29일조. 이 때 의영고를 비롯하여 사도시, 내섬시, 내자시, 사재감, 장원서, 사포서 등의 공상아문이 함께 혁파되었다.

35) 『이재난고』 2, 132면. "問義盈庫在司憲洞 洞直司憲府之西 卽工曹後邊也 工曹在景福宮 六曹大街之西 本庫正在僻巷."

36) 『이재난고』 2, 132면. "又聞義盈下人說則 奉事每朔料 米十二斗 馬太五斗 又有本庫所用 馬太若干 此爲官況矣 在番時待罷漏詰闕 供上則 晩朝乃退."

37) 『이재난고』 2, 133면.

서울로 향하였으며,[39] 7월 4일 서울에 도착하였다.[40] 전북 고창에서 서울로 오는 데 상당히 무리를 한 모양이다. 그가 데리고 온 말이 병이 들어 馬醫를 불러 치료를 하게 하였다.[41] 황윤석은 일기에 자신이 다닌 거리와 여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각각 하루에 60리, 80리, 75리, 95리 등을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세밀한 기록 습관은 상경 기록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여정을 통해 썼던 물건 가격과 지출 합계, 잔액 등도 꼼꼼히 쓰고 있다. 『이재난고』에는 기재된 지출 기록을 통하여 당시의 물건 가격과 주로 구입한 물건 품목, 場市가 섰던 날짜나 물가의 정도 등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그는 처음 가는 길이었을 경우, 주변 지역에 관한 사항과 지명, 특히 한자와 함께 한글 이름도 기록한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음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명의 유래라든가 당시의 변화하는 모습도 상세히 적어놓아 특정시기를 비정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42]

서울에 도착한 7월 4일에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義盈使令 金明吉과 首吏 몇 사람이 황윤석을 찾아왔다. 그들은 황윤석에게 의영고 관원이 하는 업무 등을 말하였는데, 의영고 관원의 주업무는 사실상 祭時에 소요물품을

---

38) 『이재난고』 2, 141면. "命治行裝 錢文二十四兩七錢六分 (內幷白米田米作錢) 白米一斗五合 田米一斗五升 馬太一斗五升 又封解由 例債二兩 及書員 李慶章抵禮曹書吏宋奎輝 私通一幅."

39) 『이재난고』 2, 141면. "二十九日乙酉 曉頭發行 雲陰山嵐."

40) 황윤석이 집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도착하는 여정을 『이재난고』를 통하여 여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월 21일 義盈庫奉事 임명 소식(6/17)을 들음.

6월 29일 曉頭發行→軍突峙(陵南邊小路)→細橋坪(존다리)→廣川石項峙→取大路→楊淵驛村→堤川→土橋里→堤川邑內東門外 趙曮謫所 방문→堤川邑內酒幕投宿(行60里)

7월 1일 田巖驛→場坪村→周浦倉→檀峙(박달재)→遠西倉水西小店(忠州地)→小月峙→大月峙→取西厓微路→江寧小店內倉→木溪津→可興倉店投宿(行80里)

7월 2일 烏甲店舍→長厚院(陰竹地)→南門懸峙(남문드르니)→薪文里店投宿(行75里)

7월 3일 梅花川(漸曮)→利川府西北旗幟峴→府中店舍→廣峴店→廣峴→昆珠浦→雙嶺店→慶安→沙峴(새오개)小店(南漢山城東門大路)→木巖(모감)店投宿(行95里)

7월 4일 利孚峙→細洞峴→松坡大店→訪雙湖(杜湖)

41) 『이재난고』 2, 147면. "招馬醫 使於數日後治馬."

42) 노혜경, 「『頤齋亂藁』의 旅行記 分析」, 『고문서연구』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5-16면.

진배하는 일이었다.[43] 황윤석은 7월 7일 숙배를 하고 7월 11일부터 의영고에 출근하여 본격적으로 공무를 시작하였다.[44] 그는 의영고 봉사라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자신의 학문 수양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의영고 봉사로 근무하고 있을 시기에는 선배 학자인 허목의 『記言』을 집중적으로 보고 초록하였으며, 『기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물, 풍속, 각 지방의 특색 등 많은 식견을 넓혔다.[45]

무엇보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博物學적인 학문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업무를 통하여 자신의 지적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곧 의영고 선생안이나 前例謄錄 數冊을 읽고 자신의 직무를 깊이 이해하는 한편 의영고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뿐만 아니라 업무에 필요로 하다고 생각한 책들은 사령을 시켜서 빌려오라고 하였다.[46]

그는 중앙의 하급관료에 불과하였지만 자신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으며, 행정업무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였다. 그는 관청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通軌類 등을 스스로 저술하기도 하였다.[47] 황윤석은 의영고 봉사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義盈庫通軌』라는 책을 편집한[48]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책은 제목으로 볼 때, 의영고의 직제, 운영, 기물, 예규 등을 총정리한 책으로 보인다.[49]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의영고 부임 이후 『이재난고』에 산재되어 있는 의영고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들이 바로 『의영고통궤』에 들어 있던 내용이라고 추정된다.

---

43) 『이재난고』 2, 146면. "義盈庫使令金命吉 與首吏數三人 來謁曰本庫官員 每一位一年 差祭不過十次 近日沈主簿(宗之)進賜 以人直之故 不赴毓祥宮 祭時進排 而使假官擧行 因被中使摘看 自上汰去 或言大臣 當請因任 而尙未出代 明日又宗廟大祭也 進賜今雖入城 而尙未肅拜 故方以假官擧行進排 然而近例 祭祀時 往往生事 先進排 後肅拜 或先參祭 後肅拜 大抵既以在外 在京既有事故則 三十日爲限肅拜 而近例如此 敢此來告耳"

44) 『이재난고』 2, 152-159면

45) 노혜경, 「18世紀 守令 行政의 實際-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7-18면.

46) 『이재난고』 2, 161면. "余言 一自入番于此 欲修本庫文跡一通 而本庫只有度支定例五卷 國朝喪禮補編四卷而已 如大典 不可不攷 借送可也 又言 西洋時憲曆法當今士大夫 汨沒科宦 無一人留意寓目者 而此係國朝史記中所當編入者 不可忽也 況大明崇禎年間已啓此法源委 而明史 未及詳焉 吾欲得此書 以之修正明史 因備國朝典故 而無可得處 爾則於觀象官員輩 想有親熟者 亦須借送可也."

47) 노혜경, 앞의 글, 2005, 17면.

48) 『이재난고』 2, 161면. "始輯義盈庫通軌."

49) 정구복, 「개요」, 『이재난고』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2-3면.

그렇다면 법전류나 관찬사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의영고의 여러 모습에 대하여 『이재난고』에서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황윤석이 의영고 봉사로 근무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의영고에는 주부, 직장, 봉사 각각 1명 외에 의영고 書員 4명, 掌務書員 1명, 庫直 1명이 있으며 날마다 입번하는 役人이 5명이었다. 그리고 의영고의 三郞位 곧 주부, 직장, 봉사에게 각각 심부름꾼[陪使令]이 1명씩 있었다. 留仕使令 1명은 날마다 입번하는 역인 중에 한 명이 담당하였고, 色掌 1명과 軍士 1명이 있었다.[50]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장무서원에 대해 황윤석은 "假吏로 4명의 書員이 雇立하여 대신 여러 업무를 주관하는 자"라고 작은 주석을 붙였다. 다시 말해 장무서원은 정식 직원이 아닌 일종의 임시직이라 할 수 있다.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 단계에서는 의영고에 서원 4명을 둔다고 하며 장무서원은 나타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영고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하여 종5품아문에서 종6품아문으로 격하되었으며, 『경국대전』에 수록된 의영고 서원 8명의 정원은 1719년에 작성된 「書吏減額別單」에서는 4명으로 감축되고 있었다. 그 후 1756년에 작성된 「各司員役存減別單」에도 서리는 총액은 5명이라고 하나 4명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1명이 감축된 상태였으며,[51] 장무서원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1768년 7월 13일 일기에 황윤석은 분명하게 장무서원 1인이 의영고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19세기에 편찬된 『육전조례』에는 황윤석이 기록한 대로 장무서원은 의영고에 소속된 서리로 수록되어 있다. 황윤석의 기록은 그런 시대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당대 상황의 단면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무서원과 관련하여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세히 의영고에 대해 들으니, 곧 세 명의 관원 중에서 주부는 國忌日에 素膳을

50) 『이재난고』 2, 162면. "本庫書員四名 掌務書員一名(卽假吏也四書員所以雇立代幹諸務者也) 庫直一名 役人逐日番立五名 三郞位各陪使令一名 留仕使令一名 則亦役人五名之一也 長番留在以待分付者也 色掌一名 卽役人所共屬者也 又有軍士一名 兵判所定也 官員入番者 雖値動駕之時 不參扈從 蓋爲入番亦重故也."

51) 최주희, 「17-18세기 중반 중앙정부의 各司員役 감축 노력과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101, 조선시대사학회, 2020, 289-303면.

進排하는 것을 주관한다. 직장은 궐내에 龍枝와 기름을 진배하는 것을 주관한다. 봉사는 黃燭을 진배하는 것을 주관하니 각자 관장하는 바가 있어 定式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 으레 입번하는 때에 따라 통틀어 모두 策應하여 혹 罪責이 있으면 입번자가 감당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사단이나 허물이 없는 것이 많았다. 의외의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6-7년 이래 들어보지 못했다.52)

관찬자료는 심하게 말하면, 주로 관청명, 관직명, 물품명만 파악할 수 있는 데 비해 『이재난고』는 관직에 따라 주관하는 업무가 분명히 있음을 의영고를 통해 알려준다. 우선 의영고의 세 관원, 즉 주부·직장·봉사가 주관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각각 다르다는 것도 『이재난고』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원래 주부는 국기일에 소선을, 직장은 대궐 안에서 용지와 기름(油)을, 봉사는 황촉을 각각 진배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定式이었다. 이런 업무 분장은 의영고뿐만 아니라 의영고와 비슷한 위상을 가진 공상아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53)

의영고 세 관원은 매월 3일씩 遞番하는 것이 공식인데, 주부는 의영고의 장관으로서 한 달에 9일을 入番하고 직장은 10일을 입번하며 봉사는 大月일 경우 11일, 小月일 경우 10일을 입번하였다.54) 그런데 관직 생활에서 예나 지금이나 맡은 업무를 쉽게 처리하려는 마음은 공통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직에 부여된 업무에 상관없이 해당일에 입번하는 사람이 의영고의 직무를 처리하고 그 책임도 입번자가 담당하는 관습이 생겼다. 그리고 6-7년 동안 그렇게 업무를 해도 아무런 탈이 없었다는 기록에서 미루어보면, 사실상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업무 관행이 의영고

52) 『이재난고』 2, 162면. "三郎位 每月各三日遞番 則主簿以長官 一月內共入番九日 直長以亞官 共入番十日 奉事案前 大月則十一日 小月則十日而已."

53) 황윤석이 말년에 전생서 주부로 근무할 때 주부는 소, 직장은 양, 봉사는 돼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의영고 봉사와 마찬가지로 관직의 등급에 따라 업무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혜경, 「18세기 典牲署의 인적구성과 기능—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참조.

54) 『이재난고』 2, 133면. "素饘則 甘藿皂藿 昆布海藻(다ᄉᆞ매) 甘苔石耳黃角(如牛毛之類)等物 此亦平時有所需者 各其貢物主人前期來納 本庫則 官員監納 盛以架子 安于大廳卓子 繞以屛風 待罷漏 乃以進排 黃燭則一隻 蠟重四兩 一雙重八兩 平時自內司鑰(內侍) 以次推入 若値擧動則 納燭無定數."

관원 사이에서 정착되어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의영고 관원에만 보이는 현상이 아닐 것이고 다른 공상아문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황윤석이 주부로 근무했던 전생서의 경우 관원들이 서로의 편의에 따라 입번을 조정하고 있었으며, 관원 간에 알력이 있을 때 황윤석은 주부로서 중재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관원보다 많은 입번을 서고 있었다.[55]

이런 내용은 법전류나 실록 같은 관찬자료에서 볼 수 없고 오직 『이재난고』와 같은 일기자료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실상은 황윤석의 기록습관이 아니었다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 素饎은 甘藿皀藿, 昆布海藻(다ᄉᆞ매), 甘苔石耳, 黃角(牛毛 같은 종류) 등의 물품이다. 이 또한 평상시에 쓰는 것으로 각기 貢物主人이 기한 전에 와서 본고(=의영고)에 납부하면 본고 관원이 납부한 것을 살펴보고 시렁[架子]에 담아 대청 탁자에 안치하고 병풍으로 둘러싸여 罷漏를 기다려서 진배한다. 黃燭은 한 짝[一隻]인데 밀랍 무게가 四兩이며 한 쌍의 무게는 八兩이다. 평상시 궐내로부터 司鑰의 內侍가 차례로 물건을 찾아다 대궐에 들여보내는데, 만일 임금의 擧動을 만나게 되면 황촉을 납부하는 데 定數가 없게 된다.[56]

진배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황윤석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공물주인, 즉 貢人이 대궐에 필요한 물품을 의영고에 납부하고 의영고에서 그것을 대궐에 바친다는 것이다. 원래 공상아문은 공안에 기재된 토산 현물을 지방에서 수취하거나, 아문에 속한 匠人을 통해 물품을 직접 제작하여 궐내에 진배하였다. 의영고에는 소속된 장인이 없기 때문에 외방군현에서 상납한 토산품을 받아서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대동법이 시행・안착되면서 외방군현에서 물품을 분정하여 공상물자를 마련하던 방식에서 공인을 통해 소요 물품을 납품받는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57]

---

55) 노혜경, 앞의 글, 2008, 178면.

56) 『이재난고』 2, 133면. "素饎則 甘藿皀藿 昆布海藻(다ᄉᆞ매) 甘苔石耳黃角(如牛毛之類)等物 此亦平時有所需者 各其貢物主人前期來納 本庫則 官員監納 盛以架子 安于大廳卓子 繞以屛風 待罷漏 乃以進排 黃燭則一隻 蠟重四兩 一雙重八兩 平時自內司鑰(內侍) 以次推入 若値擧動則 納燭無定數."

사실 황윤석이 살았던 18세기는 조선사회가 변화하고 있었던 때였다. 조선후기 재정사의 흐름에서 볼 때, 대체로 17세기는 복구와 재편의 시기, 18세기는 정비와 안정의 시기, 19세기는 침체의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특히 황윤석이 살았던 18세기는 숙종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각종 국가체제 정비 작업이 영조・정조대를 기점으로 하나둘 완비되면서 체제의 안정적인 구조가 마련된 시기였다.[58] 이런 변화의 모습은 의영고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의영고 규례에 대해 들으니, 옛날에는 진배하는 각종 물품은 원래 지방에서 상납한 토산품을 받아 의영고 창고에 보관하였다. 감찰과 함께 감독하여 차례로 진배하였는데 뒤에 공인에게 맡겼다. 그런 까닭으로 의영고에 저장된 물품은 없고 단지 이름만 남았다.[59]

황윤석의 이 기록은 18세기 공상아문의 변화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즉, 과거 의영고의 물품들은 원래 지방에서 상납한 토산품을 받아서 의영고 창고에 보관한 후, 왕실 및 왕릉에 제사할 때, 또는 왕실의 필요에 따라 진배하였는데, 지금은 공인에게 맡긴 이후로 의영고에 저장된 물품은 없고 장부상의 명목만 남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동법 시행 이후 공물아문에서 담당하던 공물 관리와 조달의 업무가 공인에게 전가되면서 사실상 의영고에 비축된 공물은 없고 장부만 관리하면 되는 당대의 상황을 『이재난고』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60]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장무서원'의 출현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현물관리가 아닌 장부관리가 의영고의 주요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장부관리와 문서행정을 위한 전문적인 사람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그 역할을 장무서원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조선정부는 중앙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급료를 받는

57)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86면.
58) 임성수, 「朝鮮後期 戶曹의 財政運營 硏究—加入・鑄錢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4면.
59) 『이재난고』 2, 134면. "又聞義盈庫規例 古則進排各物 自外方土産上納藏于本庫 監察同監 以次進排 後來出付貢人 故本庫無所藏儲 只有庫名而已."
60) 최주희, 「17-18세기 중반 중앙정부의 各司員役 감축 노력과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101, 조선시대사학회, 2020, 293면.

서리와 원역의 수를 줄이고 군사의 일부를 고립군으로 전환하고 공인들에게 고군을 세우게 하도록 하였다.[61] 마찬가지로 의영고 소속 4명의 서원이 고용하여 대신 여러 업무를 주관하게 하는 것도 영조대 중반 확립된 긴축 재정의 기조에 대한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며 장무서원을 고용하는 비용도 사실상 공인에게서 나왔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아울러 황윤석이 의영고 봉사로 재직시 일종의 임시직이었던 장무서원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식 직원으로 정착되었으며, 그런 상황이 19세기에 편찬된 『육전조례』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밖에 황윤석은 의영고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 들으니 의영고 소속 공물주인은 모두 의관, 역관, 무과 출신으로 대개 모두 中路之流이다. 이들은 왕왕 大家와 관계를 맺어 조금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혹 일을 함에 이르러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또한 드물게 있다고 한다.[62]

보통 아문에 속하는 공인은 소속 아문에서 선정하였는데, 황윤석이 당시 근무하던 의영고의 공인은 모두 醫官, 譯官, 武科出身과 같은 중인계급이었다. 『이재난고』에 보이는 의영고 소속 공인은 서울에 사는 都民 무직자가 대동법 실시로 인해 등장하는 일반적인 상인 계층의 공인과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당시 의영고 소속 공인은 권세가들과 결탁하고 있어서 그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황윤석은 언급하고 있다.

황윤석은 의영고 봉사로 서울에서 첫 관직 생활을 하였고 1769년 6월 15일 의영고 근무 평정에서 봉사로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인정한 '不廢職事上'이라는 평가를 받았다.[63] 같은 해 6월 17일 승진하여 사포서 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가 6월 19일 사포서 직장에서 상환하여 종부시 직장으로 확정되었다.[64] 이로 인해 그의 서울 생활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61) 최주희, 앞의 글, 2020, 307면.
62) 『이재난고』 2, 134면. "聞義盈所屬 貢物主人 皆是醫官 譯官 武科出身 大抵皆中路之流 此輩往往交結大家 少不如意 或至生事然 亦希有云矣."
63) 『이재난고』 2, 430면. "十五日乙丑 曉晴 ○午間義盈庫褒貶題目 自戶曹入啓者 自政院謄報 余則不廢職事上."
64) 『이재난고』 2, 434면. "○今日三十四度政 余自司圃直長 換爲宗簿寺直長 而司圃下人辭去 宗簿政事來矣."

의영고 봉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화사족과의 교유는 그의 이름을 알리고 학문과 식견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서울에서 많은 박학자를 만남으로써 경화학계의 학술적인 교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황윤석에게 큰 소득이었다.[65]

4. 맺음말

황윤석은 고향에서 1768년 6월 21일 의영고 봉사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가 근무하게 된 의영고는 고려후기에 그 명칭이 등장한 관청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 왕실공상에 참여하는 공상아문의 하나이다. 조선전기의 의영고는 『경국대전』에 油·蜜·黃蠟·素物·胡椒 등을 관장하며 종5품 令 1명, 종6품 주부 1명, 종7품 직장 1명, 종8품 봉사 1명을 두며 직장 이하 一員은 久任으로 규정한 호조의 종5품아문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의영고의 위상은 낮아져서 令은 사실상 폐지되고 주부가 주재관이 된 종6품아문이 되었고, 1882년(고종 19)에 혁파될 때까지 의영고는 끝내 종5품아문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황윤석이 의영고 봉사로 근무하던 18세기 중반은 조선후기 재정사의 흐름에서 볼 때, 대체로 정비와 안정의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난고』를 통해 본 의영고는 관찬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를 담은 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의영고의 세 관원, 즉 주부·직장·봉사가 주관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각각 달랐다. 주부는 국기일에 소선을, 직장은 대궐 안에서 용지와 기름(油)을, 봉사는 황촉을 각각 진배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정식이었다. 의영고 세 관원은 매월 3일씩 체번하는 것이 공식인데, 주부는 한 달에 9일을 입번하고 직장은 10일을 입번하며 봉사는 대월일 경우 11일, 소월일 경우 10일을 입번하였다. 그러나 황윤석이 근무하던 당시에는 이미 관직의 업무 분장에 상관없이 해당일에 입번하는 사람이 의영고의 직무를 처리하고 그 책임도 입번자가 담당하는 관습이 생겼다.

---

65) 박현순, 「지방 지식인 黃胤錫과 京華士族의 교유」, 『한국사연구』 163, 한국사연구회, 2013, 330면.

의영고에서 공상물자를 마련하는 방식도 조선전기와 다르게 변하였다. 조선전기의 공상아문은 공안에 기재된 토산 현물을 지방에서 수취하거나, 아문에 속한 장인을 통해 물품을 직접 제작하여 궐내에 진배하였다. 그러나 아문에 속한 장인이 없던 18세기 의영고는 공인을 통해 소요 물품을 납품받는 형태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단적인 모습은 『이재난고』의 "과거 의영고의 물품들은 원래 지방에서 상납한 토산품을 받아서 의영고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지금은 공인에게 맡긴 이후로 의영고에 저장된 물품은 없고 장부상의 명목만 남았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물아문에서 담당하던 공물 관리와 조달의 업무가 공인에게 전가되면서 사실상 의영고에 비축된 공물은 없고 장부만 관리하면 되는 당대의 상황은 결국 조선전기에 없던 장무서원이 출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현물관리가 아닌 장부 관리가 주요한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장부관리와 문서행정을 위한 전문적인 사람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즉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 1719년에 작성된 「書吏減額別單」, 1756년에 작성된 「各司員役存減別單」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장무서원이 1768년 7월부터 1769년 6월까지 황윤석이 근무한 의영고에 마치 정식 직원처럼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결국 19세기에 편찬된 「육전조례」에 장무서원이 의영고 소속 서리로 공식 기재된 것은 이미 고착화 되었던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재난고』는 개인일기임에도 불구하고 관찬자료에서 미처 포착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의 단면을 수록하여 조선후기 역사상을 현장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준다.

이 글은 방대한 『이재난고』에서 의영고에 관련된 일부 기록에만 취사선택하여 검토하였기 때문에 의영고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지 못한 점과 의영고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 관원과 소속 서리 등의 인간관계 및 내밀한 갈등·교유 등을 전혀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大典通編』
『六典條例』
『頤齋亂藁』

노혜경, 「18世紀 守令 行政의 實際-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_____, 「『頤齋亂藁』의 旅行記 分析」, 『고문서연구』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_____, 「18세기 典牲暑의 인적구성과 기능—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박현순, 「지방 지식인 黃胤錫과 京華士族의 교유」, 『한국사연구』 163, 한국사연구회, 2013.
배우성, 「18세기 지방 지식인 황윤석과 지방 의식」, 『한국사연구』 135, 한국사연구회, 2006.
정수환, 『조선후기 화폐유통과 경제생활』, 경인문화사, 2013.
송양섭, 「18세기 '공(公)' 담론의 구조와 그 정치·경제적 함의」, 『역사와 현실』 93, 한국역사연구회, 2014.
이상봉, 「頤齋 黃胤錫의 西行漢詩 硏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18.
임성수, 「朝鮮後期 戶曹의 財政運營 硏究—加入·鑄錢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9.
주경철,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문학과 지성사, 1999.
최주희, 「16세기 양반관료의 선물관행과 경제적 성격」, 『역사와 현실』 71, 한국역사연구회 2009.
_____,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17-18세기 중반 중앙정부의 各司員役 감축 노력과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101, 조선시대사학회, 2020.
_____, 「육조거리 주변 공물아문의 역할과 관원의 일상 업무」, 『한양의 중심 육조거리』, 서울역사박물관, 2020.
하우봉, 「이재 황윤석의 사회사상」, 『이재 황윤석』, 민음사, 1994.
한우근 외 4명,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Abstract】

Status of the *Euyeonggo* (義盈庫; Royal Procurement Services) during Hwang Yun-seok's Service

— From Citations in the *Yijaenango* (頤齋亂藁) —

Jung, Uk-Jae*

This article reviews the status and various aspects of the *Euiyeonggo* (義盈庫) in 18th century as cited in the *Yijaenango* (頤齋亂藁) by Hwang Yun-seok. The name of *Euiyeonggo,* the Royal Procurement Office and Hwang's first office in Hanyang, was first seen in the articles of late Goryo period. The *Euiyeonggo* was then designated as a branch of the Ministry of Taxation (Hojo; 戶曹), Amun in the 5th Jong rank, led by officials of *Ryeong* (令) rank, to manage oil, honey, yellow beeswax, vegetables (素膳), and peppers, etc. However, after the Imjin Invasion, the status of *Euiyeonggo* was demoted to the 6th Jong rank led by lower officials in the rank of *Jubu* (主簿) instead of *Ryeong*, and never recovers its former status until the reform in 1882 (19th year by the reign of King Gojong). Thus the *Euiyeonggo* as described in the *Yijaenango* shows more realistic aspect of the era never seen in the official documents. First of all, the *Yijaenango* shows that the 3 ranks of *Jubu, Jikjang* (直長), *Bongsa* (奉事) managed different tasks. The official documents dictate that the *Jubu* manage delivery of vegetables for Royal Memorial Day services, the *Jikjang* managed delivery of *Yongji* (龍枝) and oil in the palace, and the Bongsa delivered yellow beeswax candles (黃燭). However, according to Hwang, the officials on duty took charge of the entire duties of the *Euiyeonggo*, regardless of their ranks and designated duties.

The procurement of supplies by the *Euiyeonggo* also chang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Gongsangamun, or the Ministry of Royal Procurement, received local supplies in the official documents, or allocated products by royal artisans in the palace. However in 18th century, with no royal artisans in the Amun, the *Euiyeonggo* received its supplies from local and private artisans and traders. As its function of production and procurement was ascribed to local artisans and traders, the

* Research Fellow,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Euiyeonggo had to hire its own *Jangmuseowon* (掌務書員), or the Royal Accountant, for more professional management of it accountants and documentations. The fact that the Royal Accountant appeared during Hwang's tenure in the office from July 1768 to June 1769, is a reflection of such changes. In other words, the designation of Jangmuseowon officials as official members of the *Euiyeonggo*, is only the reflection of such trends in 19th century Joseon, and the *Yijaenango*, a personal accounts, gives more detailed clues on the reality of the late Joseon than official documents of the era.

Keywords: Hwang Yun-seok, *Yijaenango* (頤齋亂藁), *Euiyeonggo* (義盈庫), *Hojo* (戶曹), *Jangmuseowon* (掌務書員).

접수일: 2022.12.31. || 심사일: 2023.01.09. || 게재확정일: 2023.02.25.